

신흥무관학교 군사교범의 탐색

- 『보병조전』의 한·일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전 호 수*

요약

이 논문에서는 1910년대 독립군 양성의 메카이자 요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전하는 군사교범이 없는 관계로 군사적 실체가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는 신흥무관학교의 군사교범 간행 여부와 역사적 위상을 『보병보전』의 한·일 비교발달사를 시계열적으로 대비하는 방식으로 탐색하였다. 그 결과 대한제국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이르기까지 1898년, 1906년, 1924년의 세 차례에 걸쳐 편찬된 『보병보전』 또는 『보병보전초안』은 1889년 독일식 군제 채택 이후 1945년 패전까지 일본이 다섯 차례에 걸쳐 제정한 『보병보전』 중에서 앞의 세 시기, 즉 1891년, 1898년, 1909년에 발행한 『보병보전』을 직역(直譯)하는 방식으로 수용한 사실상의 번역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그 중간 시기에 위치한 신흥무관학교에서는 별도로 『보병보전』을 간행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반면에 군사훈련의 책임자이자 지도자로 활약한 윤기섭(尹琦燮)이 1924년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보병보전초안』의 편집 책임자로서 독자적인 순한글식 구령체제와 독립군의 소부대전술에 적합한 교범체계를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신흥무관학교는 대한제국 이후 임시정부에 이르는 일련의 『보병보전』 개발의 가교적인 토대를 구축했던 시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주제어: 신흥무관학교, 보병조전, 윤기섭,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관

I. 머리말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는 1911년 6월 서간도의 유하현 삼원포 추가가에서 ‘신흥강습소(新興講習所)’로 설립된 이래 1920년 8월 폐지당할 때까지 3,500여명의 독립군을 배출해낸 1910년대 독립군 양성의 메카였다. 또 그 교원·교관 및 졸업생들은 신흥무관학교는 물론 신흥학(교)우단·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 및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 등에서 교관 및 간부 등으로 활약하면서 독립군을 육성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는 군무부(軍務部)·임시육군무관학교 등의 중심 세력으로 활약하였다.

그 과정에서 독립군 초기의 대표적인 전과였던 봉오동전투·청산리전투 등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였으며, 1920년대 만주·시베리아·중국 관내에서 의열단·독립군 활동을 거쳐 임시정부 광복군의 기간 세력을 이루며 독립전쟁을 전개하였다. 이를테면, 신흥무관학교는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의 폐지 이후 임시정부에 의해 육군무관학교가 설립되고 광복군이 창설되기까지, 가교적 역할을 수행했던 항일독립전쟁의 요람이었다.(서중석, 2000; 김병기, 2011; 한시준, 2011; 조문기, 2011)

신흥무관학교에 대해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주목되기 시작하여 창설 배경이라든가 설립 과정 및 주체들의 역할, 운영 실태와 성과·영향 등에 이르기까지 그 전반에 걸친 모습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윤곽이 비교적 상세히 밝혀졌다.(신용하, 1985; 이현희, 1989; 박환, 1989^a, 1991 재수록; 서중석, 2001; 김주용, 2011) 또한 설립 주체를 비롯하여 주요 인물들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도 비교적 착실히 진행되면서(박환, 1989^b, 1998, 2014; 김주용, 2009; 한시준, 2013; 김민호, 2013; 박성순, 2016; 김순석, 2018) 연구 범위라든가 내용도 확대·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보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는 부문이 아이러니하게도 군사사 분야이다. 즉, 신흥무관학교가 기본적으로 독립군의 초급 간부를 양성하는 군사교육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사사 분야의 연구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더욱이 그 까닭이 다름아니라 당시에 신흥무관학교에서 사용하였던 교범, 즉 군사교본이 전혀 전승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획기적인 연구성과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전하는 1차 자료가 없다고 해서 전혀 연구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1차 자료가 없다면 2차 자료 내지 인접 자료를 활용하여 그 실상에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그러한 측면에서 관련 인물의 수기라든가 회고록, 또는 부분적인 편린들을 발굴·종합하려는 시도가 지속되어 왔다. 일찌기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자 교관으로 활약하였던 원병상(元秉常)의 수기¹⁾가 주목되었고, 뒤이어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신흥학(교)우단(新興學(校)友團)’의 기관지였던 『신흥학(교)우보』가 세 건²⁾이 발견됨에 따라 군사교육체계에 대해서도 적극적 논의가 시도되었다. 즉, 『신흥학우보』의 ‘학원(學苑)’란에 실린 두 편의 ‘보병 전투연구’를 신흥무관학교에서 사용한 군사교범의 일부로 해석하고자 하였다.(김주용, 2013, 2017; 조필균, 2017) 그러나 이러한 고무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신흥무관학교 군사교범체계를 복원하기에는 역부족(조필균, 2017, 149)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흥무관학교 군사교육 내지 군사교범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한 실정이다.

1) 「신흥무관학교-원병상수기-」 『독립운동사자료집』10(독립군전투사자료집), 197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 이 세 건의 자료는 ‘청산리대첩’과 관련된 3건의 자료를 더하여,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2013, 『청산리대첩 이우석수기·신흥무관학교』,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로 발행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2차 자료 내지 인접 자료를 통해 1차 자료를 복원하였던 통상적인 방식과는 달리, 대한제국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이르기까지 근대 군사교육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보병조전(步兵操典)』의 발달사를 해명하는 방식으로 신흥무관학교의 군사교범과 군사교육의 실제 및 위상을 탐색·규정하고자 한다. 그런데 개항 이후, 특히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근대 군제사는 한마디로 서구식 군제의 수용·변용의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직접적인 모델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일본³⁾의 『보병조전』 발달사와 연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논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게 될 것이다. 먼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에서 발행한 『보병조전』을 동시기 전후 일본군 『보병조전』과 비교 검토하여 상호간의 연계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편찬한 『보병조전초안(步兵操典草案)』을 동시기 전후의 일본군 『보병조전』과 장절항목을 교차 검토하여 연관성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위에서 얻어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근대 한·일 두 나라의 『보병조전』 발달사를 시계열적 관점에서 대비함으로써, 신흥무관학교의 시기에 『보병조전』의 편찬 여부를 탐색·추론하고 그 군사교범체계의 위상을 자리매김하고자 한다.⁴⁾

3) 한국 근대군제사의 성립과정에서 일본의 영향에 주목하고 상호 비교 분석의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한 경우는 ‘김혜영, 2013, “갑오개혁 이후 군사법제도의 개혁-《육군징별령》과 《육군법률》을 중심으로-” 『군사』8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유일한 듯하다. 한편 개항 이후 근대 군제사의 개혁과정이 일본군을 모델로 정책 방향을 지향하였던 것에 대해서는 ‘허동현’의 일련의 논저가 참조된다. 허동현, 1998, “1881년 조사시찰단의 일본 군사제도 인식-홍영식의 《日本陸軍總制》와 이원회의 《日本陸軍操典》을 중심으로-” 『아태연구』5, 경희대 아태지역연구원; 허동현, 1999, 『일본이 진실로 강하더니 근대의 길목에 선 조선의 선택』, 당대. 참고로, 근대 일반교육사 분야에서 사실상 일본판의 직역(直譯)에 가까운 교재 개발과 동시에 독자적 자의식 건지의 공존과 관련해서는 ‘강진호, 2012, “『국어』 교과서의 탄생과 민족주의-《국민소학독본》(1895)을 중심으로-” 『상허학보』36, 상허학회’에서 요령있게 서술하고 있다.

4) ‘『보병조전』’을 중심으로 대한제국 이후 임시정부에 이르기까지 발행된 군사교범에

이러한 면, 개항 이후 근대 군제사를 고려할 때 군사교범의 발달사도 일본을 포함한 서구식 군사교범의 수용·변용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한편에서, 시계열적 상호 대비를 통해 일정한 계통성(系統性)이나 후행효과(後行效果) 등이 검출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대한 제국에서 간행한 『보병조전』이 일본군 『보병조전』 발달사의 어느 단계의 것을 수용한 것이고, 또 임시정부에서 편찬한 『보병조전초안』도 일본의 어느 단계의 『보병조전』과 대비될 수 있다면, 그 중간 시기에 해당하는 신흥무관학교 『보병조전』의 편찬 단계와 성격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적용하는 셈이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제국 시기의 『보병조전』은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보병조전초안』조차도, 사실상 앞선 시기에 일본군이 발행한 『보병조전』을 직역(直譯)하여 수용하는 방식으로 편찬되었음이 확인된다는 점에서⁵⁾ 다소 당혹스런 측면도 없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대한제국의 군제 개혁 내지 군사교범의 개발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영향에 주목하였거나,(서인한, 1996, 243, 249) 대한제국 및 신흥무관학교 자체의 독자적 역량을 강조하였던(임재찬, 1992, 57~61; 김민호, 2017, 158) 그간의 시각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 연구로는 ‘차문섭, 1973, 1996 재수록; 임재찬, 1988, 1989^㉔, 1989^㉕, 1992; 서인한, 1996, 2000 재수록; 조필곤, 2016, 2017; 김민호, 2017’ 등이 있다.

5) 한국사의 경우 ‘『보병조전』’이라는 명칭은 신사유람단(조사시찰단)의 일본점문보고서의 하나인 ‘『일본육군조전』’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국 근대 군제사에서 『보병조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남경정부 성립 당시 육군차장으로 활약했던 ‘장작빈(蔣作賓)’에 대해 소개하는 글(『동아일보』(1928/7/18)인 ‘革命中國新人物瞥見(二)’에서 ‘『보병조전』’이라는 명칭이 일본에서 유래한 것임을 증언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蔣作賓은 湖南 出生으로 生來의 軍人인데 일찍 日本에 遊學하여 陸軍學校를 마치고, 日本의 步兵操典이라고 하는 冊을 漢譯하여, 그 存在를 中國에 周知케 하고…(하략).”

II. 대한제국 『보병조전』과 1890년대 일본 『보병조전』의 비교 분석

『보병조전』은 그 명칭만으로 보자면 육군의 병종 가운데 하나인 보병용 군사교범의 하나로 이해되기 십상이지만, 실제로는 포병·기병(기갑병) 등을 포함하는 육군은 물론 전군(全軍)에 통용되었던 가장 기본적인 교본의 하나이다. 그 까닭은 기본적으로 육군의 병종이 보병으로부터 발달되었던 역사성과 관계되겠지만, 『보병조전』의 장절항목을 살펴보더라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현전하는 자료에 근거할 때 대한제국 시기에 『보병조전』은 두 차례 간행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1898년(광무 2)에 한 차례 발행되었고,⁶⁾ 1906년(광무 10)에 다시 편찬되었다.⁷⁾ 이중에서 먼저 간행된 1898년 판⁸⁾ 『보병조전』의 항목구성을 살펴보면, ‘총칙’에서부터 ‘제1부 기본교련’, ‘제2부 전투’, 그리고 ‘부칙’에 이르기까지 모두 4부에 걸쳐 367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 가운데 모두 345개 항목으로 편성되어 본문을 이루고 있는 ‘제1부 기본교련’과 ‘제2부 전투’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각각 220개 항목과 125개 항목을 이루어 ‘제1부 기본교련’의 비중이 63.77%로서 ‘제2부 전투’의 36.23%에 비하여 거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서인한, 2000, 97)

이렇듯 『보병조전』이란 항목구성을 통해 보더라도, 보병용의 전투 훈련 교범이라기보다는 신병 교육 단계에서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들

6) 현재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하여 국립중앙도서관·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에 해당자료가 현전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청구기호 韓古朝 76-62-2’를 분석 대본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로는 ‘서인한, 1996’이 참조된다.

7) ‘김원권 편역, 『보병조전』, 1998, 국방군사연구소’의 수록본은 분석 대본으로 삼기로 한다.

8) 편의상 발행년도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해당 도서를 구분하기로 한다.

기 위한 기초 훈련인 제식 동작이 내용의 중심을 이루는 제식훈련(制式訓練)을 위주로 하는 교본⁹⁾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병조전』은 전투를 위한 각종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야전 교육 교본이 아니라, 전투 수행에 앞서 요구되는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훈육용(訓育用) 교본’으로 분류되는(임재찬, 1992, 97~101)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이후 정립된 군사 교육 내지 훈련체계는 크게 교육(敎育)과 훈육(訓育)으로 양분된다.¹⁰⁾ 군인은 기본적으로 전투를 위한 기술집단이지만,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확고한 군인정신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전투를 위한 각종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이 교육이라면, 훈육은 그에 앞서 요구되는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교육의 한 영역에 속하지만, 별도로 구분되게 된다.

이 두 과정은 군사교범과 관련해서는 전자의 경우는 군사학에 속하는 전술학(戰術學)·화기학(火器學)·학술학 과목으로 구성되는데, 대한제국 시기에는 『전술학교정(戰術學敎程)』·『축성학교정(築城學敎程)』·『군사학교정(軍事學敎程)』·『병기학교정(兵器學敎程)』·『사격교범(射擊敎範)』·『지형학교정(地形學敎程)』·『위생학교정(衛生學敎程)』·『마학교정(馬敎程)』 등으로 간행되었다. 이러한 과목들은 전문적인 교관단에 의해 교육된다.

이에 대해 투철한 군인정신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훈육과정과 관련된 분야는 내무생활·정신교육·체력단련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테면 장병 스스로 갖추어야 할 군인으로서의 품성이라든가 정신 자세, 내부

9) 기본적으로 문장이 동일하지만 보다 정제된 1906년판 『보병조전』의 「총칙」 제1항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련의 목적’ 관련 내용이 참조된다. 그 내용 및 현대적 해석문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戰爭은 百事 簡明한 者가 能히 成功을 期할지라. 故로 小數 單一한 制式을 訓練하야 應用함이 足하고(전쟁은 모든 것이 간명하여야 만 성공을 거둘 수 있으므로, 몇 개의 간단한 제식을 훈련하고 응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하략).” 현대적 해석문은 김원권 편역, 1998, 1쪽 참조.

10) 이하, 교육과 훈육에 대한 내용은 ‘임재찬, 1992, 47~115’가 참조된다.

규율 및 충실한 체력을 단련하는 것 등과 관련된 교육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훈육과정은 전문적인 교관단과는 별도로 장병들로 구성되는 중대(中隊) 단위 중심의 학도대(學徒隊)를 통해 자율적인 방식으로 역량을 축적하도록 지도된다. 이러한 용도로 대한제국 시기에 간행된 군사교본으로는 『보병조전』을 포함하여 『군대내무서(軍隊內務書)] · 『육군예식(陸軍禮式)] · 『체조교범(體操敎範)] 등이 편찬되었다. 이렇듯 『보병조전』은 신병 교육에 필요한 기본 과정인 ‘제식 동작을 위주로 하는 교본’(임재찬, 1992, 97)이기에, 보병만이 아니라 전군에 통용될 수 있는 기초 교범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보병조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던 것일까? 이에 대한 해명을 충족하는 것이 ‘제2부 전투’ 부분의 항목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병 교육은 초급 장교를 육성하는 무관학교의 교육이든 일반 병사에 대한 훈련이든 간에 기본 훈련을 숙달시키는 것이 위주가 된다. 따라서 『보병조전』에 의한 교육은 제식 훈련 및 각개교련(各個敎鍊) 등을 기초로 하여 중대 단위로¹¹⁾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의 구성은 사단 내지 여단의 단계까지 편제되므로 『보병조전』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대대(大隊) 이상의 제대별(梯隊別) 기능과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각 병종별 특성을 갖춘 전투 훈련은 ‘제1부의 기본 교련’에서 취급되기 어려우므로, ‘제2부 전투’ 부분을 통해 충족하도록 구성된다.¹²⁾

11) 1898년판 『보병조전』의 ‘『총칙』 제2항과 제3항’ 참조. 현대 교범의 관련 내용은 ‘임재찬, 1992, 96~97’ 참조.

12)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군의 근대 군사교범 발달과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이 참조된다. “제병(諸兵) 연합부대에 대한 전투의 일반 원칙은 1929년 『전투강요(戰鬪綱要)]』(이후 『작전요무령(作戰要務令)]』)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보병조전』의 ‘제2부’에 기술되었고, 기병 등 기타 병종의 조전도 『보병조전』을 기본으로 하여 ‘제2부’에서 각 병종에 맞는 전투 원칙을 구성하여 부대 운용 및 훈련의 기준으로 삼았다.(방위

이렇듯 『보병조전』은 제식훈련에 중점을 둔 전군용(全軍用) 기초 교범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보병 훈련의 기본 교본으로서의 역할도 갖추게 되었다. 이에따라 신무기의 출현이나 전쟁의 경험 등을 통해 작전·전술상의 조건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보완·개정이 뒤따르게 되는 것도 『보병조전』이었다. 그런 까닭에 『보병조전』의 변천 내지 발달사를 통해서 시계열적인 비교 분석이 가능한 경우라면, 어느 시점의 상대방의 실체를 밝히는 데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 특히, 한국 근대사의 경우 군사 근대화의 첫 단계부터 일본군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황병무, 1969; 한용진 외, 2001), 양자간의 비교 분석은 매우 긴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논의로 들어가기 위해 우선 대한제국 시기에 편찬된 『보병조전』과 동시기 전후 일본군 『보병조전』의 목차 내지 항목 구성의 일람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1898년판과 1906년판으로 두 차례 간행된 대한제국의 『보병조전』은 1890년대에 두 차례 발행된 일본군의 『보병조전』¹³⁾을 거의 그대로 직역(直譯)한 번역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즉, 1898년판 대한제국의 『보병조전』은 1891년에 제정된 일본군의 『보병조전』¹⁴⁾을, 1906년판 대한제국의 『보병조전』은 1898년판 일본군 『보병조전』¹⁵⁾의

청 방위연수소전사실, 1969, 27, ‘日露戰爭 直後から昭和初期間の歩兵操典改正’이 참조된다.)

13) 『보병조전』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일본군 군사교범의 발달사에 대해서는 ‘渡邊錠太郎, 1933; 고야마 히로타케(小山弘健), 1944; 엔도 요시노부(遠藤芳信), 1994, 91~181’이 참조된다. 한편 근대 일본군 군사교범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훈련에 관한 각 병종별 전투의 기본 제식을 규정한 『보병조전』을 대표로 하는 ‘조전(操典)’, 전투의 보조 기술 및 동작을 규정한 ‘교범(教範)’, 제 병종의 합동 전투의 전술 등을 규정한 ‘요무령(要務令)’”으로 3분류(엔도 요시노부, 1994, 57)하고 있다. 그런데 ‘교범’이라는 범주의 분류와 관련해서는 실제로는 ‘교정(教程)’이라는 명칭이 더 많이 쓰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14) 『보병조전』, 명치 24년(1891) 8월, 東京: 昌榮社,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청구기호: 特66-373’를 분석 대본으로 삼기로 한다.

15) 『보병조전』, 명치 31년(1898) 2월, 東京: 昌榮社,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청구기호:

항목과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두 나라에서 모두 8년의 시간차를 두고 발행된 두 『보병조전』의 항목구성을 상호 대비해보면,¹⁶⁾ 커다란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일본군의 경우도 보불전쟁(普佛戰爭, 프러시아-프랑스전쟁, 1870~71) 이후 종래 모범으로 삼았던 프랑스식 『보병조전』을 대신하여, 프러시아(또는 프로이센), 즉 독일의 1888년판 『보병조전』을 사실상 직역하는 방식으로 1891년판 『보병조전』을 제정하고,¹⁷⁾ 다시 청일전쟁을 겪은 이후 1898년판 『보병조전』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신무기로서 30년식 연발총을 채택하는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술상으로는 별반 인식이 달라지지 않아서, 1898년판 『보병조전』은 1891년판 『보병조전』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기(후지와라 아키라, 1994, 116~117) 때문이다.

그러면 우선 1898년판 대한제국 『보병조전』의 장절항목 일람표를 제시하고, 뒤이어 다시 1898년판 일본군 『보병조전』의 장절항목 일람표를 제시한 다음, 네 개의 교범을 통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1898년에 발행된 대한제국 『보병조전』의 장절항목 일람표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特66-374'를 분석 대본으로 삼기로 한다.

- 16) 실제 원전과 번역판에 해당하는 대한제국과 일본의 두 나라 교범의 '장절항목의 직접적인 대비표'는 지면(紙面)의 한계를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 17) 1888년판 독일군 『보병조전』에 대한 일본의 대조(對照) 번역본(翻譯本)은 '寺家村和介・諸橋秀策 共譯, 『(原譯對照) 獨逸步兵操典』, 1904, 東京; 金港堂書籍,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청구기호: 158-504(洋)'으로 발간되었다.

<표 1> 1898년판 대한제국 『보병조전』의 장절항목 일람표

總則		
第 1 部 基本敎練	第1章 各個敎練	총칙
		徒手敎練 不動姿勢, 轉回, 行進
		執銃敎練 銃의操法, 銃創 ¹⁸⁾ 의着脫, 裝填, 彈丸抽出, 射擊, 執銃行進, 襲步
		散兵敎練 行進及停止, 사격
	第2章 小隊敎練	총칙
		密集隊次 小隊의編制, 整頓, 小隊의背面向, 총의조법及銃創의작탈, 結銃及解銃, 장전, 사격, 橫隊의正面行進, 斜行進, 驅步·襲步, 小隊의停止, 行進間의背面向, 退步, 方向變換, 側面行進, 側面行進間(伍의分解及重複, 伍伍方向變換, 停止及正面向, 行進間右(左)向, 側面縱隊로서 橫隊와 橫隊로서 側面縱隊에 移轉, 二列로一列과一列로二列에 移轉, 解列及聚立
		散開隊次 散開 散兵線의運動 散兵線의擧降 聚立及併聚立
	제3장 중대교련	총칙
		밀집대차 橫隊의편제及區分, 정돈, 背面向, 총의 조법, 橫隊의運動, 側面縱隊, 中隊縱隊의 편제, 橫隊로中隊縱隊에移轉, 半中隊縱 ¹⁹⁾ 에編制, 中隊縱隊와半中縱隊로橫隊의移轉, 中隊縱隊로半中縱隊와半中縱隊로中隊縱隊에移轉, 側面縱隊로中隊縱隊及半中縱隊와中隊縱隊及半中縱隊로側面從隊에移轉, 中隊縱隊及半中縱隊의運動, 方陣, 사격
		산개대차 散開及散兵線의運動, 사격, 散兵線의增加, 援隊, 突擊, 聚立及併聚立
	제4장 대대교련	총칙, 大隊의基本隊形, 정돈, 총의조법, 一의隊形으로他의隊形에移轉, 同一의隊形으로間隔距離에開閉, 基本隊形의運動, 戰鬪展開
	제5장 연대교련	총칙, 聯隊의聚立隊形, 聚立隊形의運動, 전투전개
	제6장 여단교련	총칙, 旅團의聚立대형, 聚立대형의운동, 전투전개
제 2 部 戰鬪	제1장 普通原則	緒言, 練兵場의效用, 散開隊次及密集隊次, 散開戰鬪, 諸兵種에對한動作, 工具의使用, 戰鬪間指揮官及兵卒의動作, 戰鬪正面及梯隊區分, 攻擊及防禦
	제2장 部隊戰鬪	중대전투, 대대전투, 연대전투, 여단전투
	제3장 結論	
부 록	軍旗의迎送 軍旗의捧持法及其敬禮 軍刀의持方	

18) 의미상으로는 ‘창(創)’이 아닌 ‘창(槍)’이 분명하지만, 원문대로 실었다. 1891년판 일본군 『보병조전』의 표기는 ‘총검(銃劍)’이다.

다음으로 1898년판 일본군 『보병조전』의 장절항목 일람표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1898년판 일본군 『보병조전』의 장절항목 일람표

總則			
第1部 基本教練	第1章 各個教練	總則	
		徒手教練	不動ノ姿勢, 轉回, 行進
		執銃教練	銃ノ操法, 銃劍ノ着脱, 裝填及充填, 彈藥ノ抽出, 射擊, 執銃行進, 襲步及突擊
		散兵教練	行進及停止, 射擊
	제2장 소대교련	總則	
		密集隊次	小隊ノ編成, 整頓, 小隊ノ背面向, 銃ノ操法及銃劍ノ着脱, 叉銃及解銃, 裝填及充填, 射擊, 橫隊ノ正面行進及背面行進, 斜行進, 驅步・襲步及突擊, 小隊ノ停止, 退步, 方向變換, 側面行進, 側面行進間伍ノ分解及重複, 伍伍方向變換, 停止及背面向, 行進間右(左)向, 側面縱隊ヨリ橫隊ニ及橫隊ヨリ側面縱隊ニ移ル, 二列ヨリ一列ニ及一列ヨリ二列ニ移ル, 途步, 解散及集合
		散開隊次	散開, 散兵線ノ運動, 散兵線ノ射擊, 集合及併合
	제3장 중대교련	總則	
		密集隊次	橫隊ノ編成及區分, 整頓, 背面向, 銃ノ操法, 橫隊ノ運動, 側面縱隊, 中隊縱隊ノ編成, 橫隊ヨリ中隊縱隊ニ移ル, 中隊縱隊ヨリ橫隊ニ移ル, 側面縱隊ヨリ中隊縱隊ニ及中隊縱隊ヨリ側面縱隊ニ移ル, 中隊縱隊ノ運動, 方陣, 射擊, 銃劍突擊
		散開隊次	散開及散兵線ノ運動, 射擊, 散兵線ノ增加, 援隊, 集合及併合
	제4장 대대교련	總則, 大隊ノ基本隊形, 整頓, 銃ノ操法, 一ノ隊形ヨリ他ノ隊形ニ移ル, 同一ノ隊形ニテ間隔距離ノ開閉, 基本隊形ノ運動, 戰鬪展開	
	제5장 연대교련	總則, 聯隊ノ集合隊形, 集合隊形ノ運動, 戰鬪展開	
	제6장 여단교련	總則, 旅團ノ集合隊形, 集合隊形ノ運動, 戰鬪展開	

19) 의미로 보아 ‘반중종대(半中縱隊)’가 확실하지만, 원문대로 적었다. 1898년판 대한 제국 『보병조전』에서 새로이 설정되고 있는 개념이다.

第2部 戰團	제1장 一般ノ原則	緒言, 練兵場ノ效用, 散開隊次及密集隊次, 散開戰團, 諸兵種二對スル動作, 工作器具ノ使用, 戰團間指揮官及兵卒ノ動作, 戰團正面及梯隊區分, 攻撃及防禦
	제2장 部隊戰團	中隊戰團, 大隊戰團, 聯隊戰團, 旅團戰團
	제3장 결론	
附錄	軍旗ノ迎送 軍旗ノ捧持法及其敬禮 軍刀ノ指方	

다시 위의 <표 1>과 <표 2>를 바탕으로 네 가지 『보병조전』의 장절 항목을 상호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하나의 일람표로 제시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대한제국 『보병조전』과 일본 『보병조전』의 항목 차이 대비표

항목 \ 판종	1891년판 일본군 『보병조전』	1898년판 대한제국 『보병조전』	1898년판 일본군 『보병조전』	1906년판 대한제국 『보병조전』
제1장 각개교련	不動ノ姿勢	不動姿勢	不動ノ姿勢	不動姿勢, 氣着, 休息 ²⁰⁾
	銃劍ノ着脱	銃劍의着脱	銃劍ノ着脱	銃劍의着脱
	裝填	裝填	裝填及充填	裝填
	彈藥ノ抽出	彈丸抽出	彈藥ノ抽出	彈丸抽出
	襲步	襲步	襲步及突擊	(襲步及突擊) ²¹⁾
제2장 소대교련	小隊ノ編成	小隊의編制	小隊ノ編成	小隊의編成
	銃ノ操法及 銃劍ノ着脱	銃의操法及 銃劍의着脱	銃ノ操法及 銃劍ノ着脱	銃의操法及 銃劍의着脱
	裝填	裝填	裝填及充填	裝填
	橫隊ノ 正面行進	橫隊의 正面行進	橫隊ノ 正面行進及 背面行進	橫隊의 正面行進及 背面行進
	—	—	途步	散步
	解列及集合	解列及聚立	解散及集合	解散及聚立
	集合及併合	聚立及併聚立	集合及併合	立及併聚立

제3장 중대교련	横隊ノ編成 及區分	横隊의編制 及區分	横隊ノ編成 及區分	横隊의編成 及區分
	中隊縦隊ノ 編成	中隊縦隊의編制	中隊縦隊ノ 編成	中隊縦隊編成
		半中隊縦隊의編制		半中隊縦隊編成
	横隊ヨリ中隊 縦隊ニ 移ル	横隊로中隊縦 隊에移轉	横隊ヨリ中隊 縦隊ニ 移ル	横隊로中隊縦 隊에移轉
				横隊로半中隊縦 隊에移轉
	中隊縦隊ヨリ 横隊ニ 移ル	中隊縦隊와 半中隊縦隊로 横隊의移轉	中隊縦隊ヨリ 横隊ニ 移ル	中隊縦隊와 半中隊縦隊로 横隊의移轉
		中隊縦隊로 半中隊縦隊와 半中隊縦隊로中 隊縦隊에移轉		
	側面縦隊ヨリ 中隊縦隊ニ及 中隊縦隊ヨリ 側面縦隊ニ移 ル	側面縦隊로中 隊縦隊及半中 隊縦隊와中隊縦 隊及半中隊縦隊 로側面縦隊에 移轉	側面縦隊ヨリ 中隊縦隊ニ及 中隊縦隊ヨリ 側面縦隊ニ移 ル	側面縦隊로中 隊縦隊及半中 隊縦隊와中隊縦 隊及半中隊縦隊 로側面縦隊에 移轉
	中隊縦隊ノ 運動	中隊縦隊及半 中隊縦隊의運動	中隊縦隊ノ 運動	中隊縦隊及半 中隊縦隊의運動
	射撃	射撃	射撃	射撃
제4장 대대교련	突撃	突撃	銃劍突撃	中隊縦隊及 半中隊縦隊의 (銃劍突撃)
	集合及併合	聚立及併聚立	集合及併合	聚立及併聚立
	一ノ隊形ヨリ 他ノ隊形ニ移 ル	一의隊形으로 他의隊形에移 轉	一ノ隊形ヨリ 他ノ隊形ニ移 ル	一의隊形으로他 의隊形에移轉
				重複縦隊로他隊 形에移轉
				大隊縦隊로他隊 形에移轉
				縦隊横隊로他隊 形에移轉
제5장 연대교련	聯隊ノ集合 隊形	聯隊의聚立 隊形	聯隊ノ集合 隊形	聯隊의聚立 隊形
	集合隊形ノ 運動	聚立隊形의 運動	集合隊形ノ 運動	聚立隊形의 運動

제6장 여단교련	旅團ノ集合 隊形	旅團의聚立 隊形	旅團ノ集合 隊形	旅團의聚立 隊形
	集合隊形ノ 運動	聚立隊形의 運動	集合隊形ノ 運動	聚立隊形의 運動
제2부 전투 제1장	普通ノ原則	普通原則	一般ノ原則	一般原則
	散開戰鬪	散開戰鬪	散開戰鬪	散開戰鬪, 總則, 散開, 射擊, 運動, 聚立及併聚立
	工具ノ使用	工具의使用	工作器具ノ使用	工作器具使用
	戰鬪間指揮官 及兵卒ノ動作	戰鬪間指揮官 及兵卒의動作	戰鬪間指揮官 及兵卒ノ動作	戰鬪間指揮官及 兵卒의動作, 指 揮官, 兵卒
부록	軍旗ノ迎送	軍旗의迎送	軍旗ノ迎送	軍旗迎送, 總則, 軍旗奉迎, 軍旗 奉送
	軍刀ノ指方	軍刀의指方	軍刀ノ指方	軍刀指法

위의 <표 3>을 통해 드러나는 대한제국의 『보병조전』과 일본군 『보병조전』의 항목구성의 차이점을 우선 전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로 그 차이점이 대부분 ‘제1부 기본교련’의 항목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2부 전투’ 내지 ‘부록편’과 관련해서도 모두 여섯 항목에 걸쳐 장절항목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용어상의 차이이거나 동일 항목의 구성을 보다 상세히 구분하고 있을 뿐으로, 실제 내용상으로는 동일하다. 따라서 사실상 차이점이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제1부 기본교련’과 관련해서는 많은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몇 가지 중복되는 용어상의 차이와 대형 훈련(隊形訓練)상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특별한 차이점을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제3장 중대교련’과 ‘제4

20) 『보병조전』 각각의 항목구성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굵은 글씨로 처리하기로 한다. 이하, 동일하다.

21) 목차 구성에서는 ‘습보(襲步)’로만 되어 있으나, 실제 본문 구성에서는 ‘습보급돌격(襲步及突擊)’으로 되어 있는 경우 괄호를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이하, 동일하다.

장 대대교련'의 항목에서 대한제국 『보병조전』의 경우 일본군 『보병조전』에는 없던 '반중대(半中隊)'라는 개념이 추가로 설정되면서 항목구성에 많은 분화 내지 발전상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이 편제상(編制上)의 개념이 아니라 대형구분(隊形區分)상의 용어라는 점에서 어떤 질적인 차이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한제국의 『보병조전』에서 일본군 『보병조전』의 '중대중대(中隊縱隊)'에 대응하여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반중중대(半中縱隊)' 항목이 설정되고 있는데, 그 실체는 4개 소대(小隊)로 편성되는 1개 중대(中隊)를 횡대로 4개 소대를 정렬한 것을 '중대횡대(中隊橫隊)', 제1소대부터 제4소대에 이르기까지 중대로 정렬한 것을 '중대중대(中隊縱隊)'라고 명명하는 것에 대하여, 앞 열에 좌우로 2소대와 3소대를 횡대로 배치하고, 뒷 열에 1소대와 4소대를 횡대로 배치한 정렬방식을²²⁾ 가리키는 용어이다. 따라서 그것은 대형 훈련상의 하나의 추가 설정에 불과할 뿐으로, 부대 편제라든가 전술상 분화·발전상과 같은 질적인 차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렇듯 대한제국의 『보병조전』과 그 원전(原典)에 해당하는 일본군 『보병조전』의 사이에는 어떤 뚜렷한 차이라든가 질적인 차이점을 갖는 장절항목의 구성이 별반 발견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의도적인 용어상의 차이라고 보여질만한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요약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22) 『보병조전』(1898판), 108~120쪽, 제1부 기본교련, 제3장 중대교련, 「밀집대차」의 소항목으로 '횡대의 편제급구분·중대중대의 편제·반중중대의 편제' 및 그 부속도(付屬圖)로 '제1도 중대횡대·제2도 중대중대·제3도반중중대' 참조.

〈표 4〉 대한제국 『보병조전』과 일본 『보병조전』의 용어구성 대비표

판종 순번	1891년판 일본군 『보병조전』	1898년판 대한제국 『보병조전』	1898년판 일본군 『보병조전』	1906년판 대한제국 『보병조전』
1	銃劍	銃創	銃劍	銃創
2	裝填	裝填	裝填及充填	裝填
3	彈藥	彈丸	彈藥	彈丸
4	襲步	襲步	襲步及突擊	(襲步及突擊)
5	—	—	途步	散步
6	集合	聚立	集合	聚立
7	併合	併聚立	併合	併聚立
8	中隊縱隊	中隊縱隊	中隊縱隊	中隊縱隊
		半中隊縱		半中隊縱
9	突擊	突擊	銃劍突擊	(銃劍突擊)

위의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분명히 의도적인 용어 선택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들은 두 차례에 걸친 일본군 『보병조전』의 수용에도 불구하고 아홉 가지 사항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가운데 6번과 7번, 5번 항목의 ‘집합(集合)→취립(聚立)’이라든가, ‘병합(併合)→병취립(併聚立)’, ‘도보(途步)→산보(散步)’는 단지 외국어와 자국어의 어휘 대비에 따른 ‘용어상의 차이’일 뿐이라고 볼 수 있다. 또 1번과 3번 항목의 ‘총검(銃劍)→총창(銃創)’이라든가 ‘탄약(彈藥)→탄환(彈丸)’도 마찬가지로 용어의 차이에 따른 두 나라의 무기체계상의 어떤 본질적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어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총검(銃劍)→총창(銃創)’과 관련하여 원전 및 번역문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銃劍ノ着脱 第二十九 銃劍ノ着脱ハ停止行進間共ニ之ヲ行フヲ
得着脱終レハ銃ヲ舊位置ニ復ス可シ(1891년판, p.21 ; 1898년판
p.27)

- ② 銃創의 着脫 第三十一 銃創의 着脫은 停止行進間에 共하여 行 하나니, 着脫을 終한즉 銃을 舊位置에 復하미 可할 事(1898년판, 29쪽)
- ③ 銃創着脫 第二十八 銃創着脫은 停止와 行進間에 共히 行하나니, 着脫을 終하면 銃을 舊位置에 復하나니라.(1906년판, 31~32쪽)

위의 세 문장을 살펴보면, 대한제국의 『보병조전』에서 시대에 따른 표기법의 부분적인 차이가 발견될 뿐, 사실상 동일한 문장임을 알 수 있다.²³⁾ 따라서 그 용어상의 차이에는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1898년판 일본군 『보병조전』에서 새로이 채택하고 있는 4번과 9번 항목의 ‘습보급돌격(襲歩及突撃)’과 ‘총검돌격(銃劍突撃)’이 1906년판 대한제국 『보병조전』의 목차 구성에서는 단지 ‘습보(襲歩)’와 ‘돌격(突撃)’으로 표기되고 있어서 주목되지만, 실제 본문 구성에서는 ‘습보급돌격(襲歩及突撃)’과 ‘총검돌격(銃劍突撃)’으로 표기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만, 2번 항목의 ‘장전급충전(裝填及充填)’의 경우는 1898년판 일본군 『보병조전』에서 새로이 선보인 항목인데, 1906년판 대한제국 『보병조전』에서는 대한제국의 1898년판 『보병조전』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런데 그 차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문장의 도입부에서 ‘장전’과 더불어 ‘충전’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별반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보아도 좋을 사항이다. 그 해당 문장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裝填 第七十四 裝填ハ毎兵熟達ノ度ニ應シ成ル可ク迅速ニ施行スルヲ要ス但下士ハ要スルキノミ之ヲ行フ(1891년판, pp.59~60)

23) 일본군 『보병조전』의 경우 1891년판은 제29조에, 1898년판은 제35조에 해당 항목이 편성되어 일부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항목 순번’의 차이는 각 『보병조전』 ‘서두부’의 항목 구성에 따른 차이이다. 그러나 그 문장의 내용은 동일하다.

- ② 裝填及充填 第八十四 裝填及充填ハ各兵卒熟達ノ度ニ應シ成ル
可ク迅速ニ遵行スルヲ要ス但下士ハ要スルキノミ之ヲ行フ(1898년
판, p.66)
- ③ 裝填 第七十四 裝填은 每 兵卒의 熟達한 度에 應하야 아모조록
迅速히 施行함을 要하고 但 下士는 要한 時에만 行할事(1898년
판, 64~65쪽)
- ④ 裝填 第七十四 裝填은 各兵 熟達한 度에 應하야 아모조록 迅速
히 行함을 要하나니, 但 下士는 要한 時만 此를 行하나니라(1906
년판, 71쪽)

위의 네 문장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그 차이점은 1898년판 일본군 『보병조전』에서 ‘장전(裝填)→장전급충전(裝填給充填)’과 ‘매병(每兵)→각병(各兵)’으로 보완·수정함에 따라, 대한제국의 1906년판 『보병조전』에서는 ‘매병(每兵)→각병(各兵)’으로 수정하였을 뿐이다. 이렇듯 대한제국 시기에 두 차례 편찬된 『보병조전』은 8년의 시간차를 두고 일본군의 『보병조전』을 사실상 그대로 직역한 번역판이라는 실상이 다시금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듯 대한제국이 일본군의 『보병조전』을 거의 그대로 직역하는 방식으로 군사교범이 제정되고 있었던 것일까? 1906년판 『보병조전』의 경우에는 이미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일제의 반식민지 상태에 들어간 이후에 간행된 교범이라는 점에서 일정하게 납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1898년판 『보병조전』이 간행된 6월 25일의 시점은 여전히 아관파천(俄館播遷)에 따른 러시아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던 시기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그간의 연구에서 1898년판 『보병조전』의 간행을 러시아 군사교문단의 영향에 따른 산물로 본다거나,(서인한, 1996, 112~113) 대한제국의 독자적인 산물로 인식하였던(임재찬, 1992, 57~61)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1896년 4월 니콜라이 Ⅱ세의 대관식에 참여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특사로 파견되었던 민영환(閔泳煥)이나 러시아공사관에 남아 있던 고종도 부풀었던 기대가 허상임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종의 급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즉, 러시아는 200명의 고문단을 파견하기를 요청하는 대한제국의 제안에 애매모호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던 것은 물론 민영환이 모스크바에 체류하고 있던 동안에 러·일 비밀협약인 로바노프-아마가타의정서를 체결하는 이중성을 보임으로써 대한제국의 조야를 경악시켰다. 또한 대한제국의 군제개혁에도 부정적 입장을 취하여 끝내 재정차관을 제공하지 않았던 반면에, 군사고문단장 뿌차타 대령은 고종의 신변까지 위협하는 압박도 서슴치 않았다. 당시 러시아는 만주대륙에서의 이권에 집중했던 반면에, 한반도에 대해서는 모호한 ‘소극적 세력균형’(하상식, 2000, 270~271) 정책을 견지하여 일본과도 타협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을미사변이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취하면서 한반도에서 우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일본은 새로이 고종과 친분이 두터웠던 가토오 마쓰오(加藤増雄)를 공사에 임명하여 덕수궁(당시는 경운궁) 환궁 직후 단행한 대한제국의 선포에 대한 승인을 고대하던 고종에게 가장 먼저 승인 조치를 취하였고, 차관 교섭과 무기 제공 등을 통해 대한제국의 군비증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주한일본 공사관 무관인 우좌천(宇佐川)대좌는 유학생의 파견, 일본군 기동연습의 관람 등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군사외교를 전개하였다.

특히, 고종의 환궁 직후인 2월 24일에 러·일 비밀조약인 로바노프-아마가타의정서를 폭로하여 반러적 여론을 이끌어 냄으로써, 한·러 관계는 균열이 시작되었던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또한 고종으로서는 또다른 대안세력으로서 프랑스를 주

목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고종은 1898년 3월 군사고문단의 재계약을 문의하는 러시아공사 쉬삐이에르에게 주저없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던 것이다.(현광호, 2001, 2002; 이민원, 2001; 김영수, 2006, 2017; 심현용, 2009)

이러한 여론의 급선회 과정에는 잘 알려진 독립협회의 활동 이외에도 당시 궁정세력의 중심에 있던 민영환의 러시아에 대한 실망도 주요 원인의 하나였다. 민영환은 모스크바대관식 참석 이후 더 이상 러시아의 보호를 기대하지 않았던 반면에, 일본과 연계하고자 본래 육군무관학교 출신으로 일본 육사에 유학하였던 무관들의 재등용을 알선하였다. 이에따라 1898년판 『보병조전』을 간행할 때 편집진에 이름을 올렸던 ‘이병무(李秉武) · 권학진(權學鎭) · 왕유식(王瑜植)’(1898년판 『보병조전』, ‘편집’) 등 이른바 ‘일본과 내지 군인파’(한철호, 1992, 49)로 불렸던 일본 육사 출신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들은 을미사변과 아관파천으로 인해 유학 중에 강제 소환되어 불우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중에 때마침 기대해마지 않던 활로를 찾았던 것이다.(이기동, 1982, 9~12) 이에따라 그들은 자신들의 근거지였던 육군무관학교를 중심으로 급속한 정세변화 속에서 『보병조전』 등 군사교범을 편찬하면서 활동 영역을 넓혀갈 수 있었다.

이에 당시의 그러한 사정을 엿볼 수 있는 기사로서, 제2기 육군무관학교(임재찬, 1992, 22) 제1기생의 회고록을 주목해볼 수 있다.

내가 舊韓國時代에 잇섯든 저 陸軍武官學校에 입학하기는 바로 그 무관학교가 설립되든 光武 10년인 바 제1회의 학생으로 드르갔는데…(중략). 교관으로 말하면 교장 李學均, 교두 李秉武…(중략), 王瑜植 등 諸氏였는데, 氏등의 이력을 잠간 말하자면…(중략), 교두 李秉武씨는 日本士官學校 출신이었고, 기타 교관들도 전부 日本士官學校 출신이 었섯다.²⁴⁾

Ⅲ. 임시정부 『보병조전초안』과 1909년 일본 『보병조전』 비교 분석

현전하는 군사교범으로 신홍무관학교의 활동이 시작된 이후에 발행된 『보병조전』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보병조전초안(步兵操典草案)』이 있다. 이 『보병조전초안』은 1924년(대한민국 6) 5월 25일자로 임시정부 군무부 임시편집위원부 위원장 윤기섭(尹琦燮)의 명의로 편찬되었는데,(김민호, 2015, 2017) 무엇보다도 목차의 용어나 구성 전체에 걸쳐 순한글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일단은 외형적으로만 보자면, 임시정부에 의한 독자적인 군사교범의 구축을 상정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범 전체를 순한글 문장으로 기술한 것은 아니고 본문에서는 국한문혼용체의 표기법을 사용하였고, 목차에서도 괄호 안에 그에 해당하는 한자어를 병기하고 있다. 그러나 목차구성이나 용어에서만이라도 순한글식 표기법, 예를들면 ‘각개교련(各個敎鍊)→낫낫교련’이라든가, ‘탄환(彈丸)→탄알’, ‘사격(射擊)→불질’, ‘돌격(突擊)→짓침’ 등과 같은 순한글식 용어의 개발을 지향하였던 것은 매우 주목될 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교범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간행된 군사교범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단지 근대적 군사교리에 대한 이해의 심화 내지 내재화(內在化)의 결실로서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민족주의적 색채가 충분히 의도된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완운(蜿雲) 윤기섭(尹琦燮, 1887~1959)은 임시정부 군무부 임시편집위원부 위원장으로서 『보병조전초안』을 발행하였다. ‘군무부 임시

24) 「나의 母校와 恩師-육군무관학교 前陸軍 正尉 吳祥根」『삼천리』4-1호, 1932/1/1.

편집위원회’는 임시정부가 군사교육에 필요한 교과서(教科書)를 만들기 위해 1920년 10월 8일 교령(敎令) 제11호로 반포한 ‘군무부임시편집위원회부규정’에 따라 설치한 기구이다.²⁵⁾ 윤기섭이 ‘임시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된 것은 다분히 신흥무관학교에서의 활동 경력에 따른 결과였다고 판단된다.

윤기섭은 1911년 6월 신흥무관학교를 창립할 때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이후, 1920년 8월 폐지당할 때까지 줄곧 10여년 동안 신흥무관학교에서 학감·교감·교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군사교육을 주관하였다. 또한 그 후원·지도 조직으로서 신흥교육회·신흥학(교)우단의 창립을 주도하고 두 차례에 걸친 폐교의 위기를 넘기면서 신흥무관학교를 지켜냈던(한시준, 2013) 이를테면 신흥무관학교의 산증인²⁶⁾이었다. 이 과정에서 『신흥학(교)우보』에 실린 상무자(尙武子) 명의의 두 편의 ‘보병전투연구’²⁷⁾ 논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윤기섭 등 신흥무관학교 지도그룹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는 독자적인 군사교범의 개발이었다.

이렇듯 10여년 동안 신흥무관학교의 설립멤버이자 지킴이(김광재, 2009)로 활약하였던 윤기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자 1920년 2월 서간도 대표로 선출되어 임시의정원에 참여하여, 임시정부가 즉각 혈전(血戰), 즉 무장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군사에 관한 건의

25) 『대한민국임시정부법령집』(한시준 편, 1999, 국가보훈처), 264쪽 참조. 이 법령의 제1조에서는 ‘군사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편집하기 위하여 임시편집위원부를 치(置)함’이라고 하여, 그 설치 목적을 ‘군사교범’의 편찬으로 한정하고 있다.

26) 『독립신문』, 1920/4/3, ‘尹琦燮氏等の 제출한 군사에 관한 건의안이 一人의 반대가 無히 最終日의 의정원을 통과하다. 군사기관은 만주로. 금년내에 血戰開始’ 기사 참조.

27) 『신흥학우보』제2권제2호(1917/1/13)에는 ‘步兵戰鬪研究(譯) 續一’이라는 제목으로, 『신흥학우보』제2권제10호(1918/7/15)에는 ‘(步兵操典對照)步兵戰鬪研究(譯) 續九’라는 제목으로 尙武子 명의의 논문을 실고 있다. 이로써 보건대 최소한 10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보병조전』에 의거하여 보병의 전투법을 연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때의 『보병조전』이 어느 국가, 어떤 판본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다.

안'을 제의하여 통과시켰다. 즉, 윤기섭은 1919년 국내에서 3·1운동이 발발하자 당시의 상황을 전시(戰時)로 규정하여 '재만임시국민대회(在滿臨時國民大會)'를 소집하고, 임시의장에 선출되어 국내 진공의 혈전(血戰)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그 결의사항을 임시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서간도 대표로 선출되어 '임시정부의 군무부를 만주로 옮기고, 금년 내에 전투를 개시하되 적어도 보병 10개 연대를 출동시켜 혈전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는 건의안을 제출하였던(한시준, 2013, 583~585; 이재호, 2011)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윤기섭이 제의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임시의정원도 그 실행을 뒷받침할 만한 현실적 역량, 특히 재정 문제를 충족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이었다.(한시준, 2013, 585) 게다가 얼마후 신흥무관학교도 폐교당함에 따라 윤기섭은 임시정부가 구상하고 있던 군사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임시정부의 군사정책은 1920년에 발표한 '시정방침(施政方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임시정부는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개전 준비(開戰準備)'를 위해 '군사적재(軍事適材) 소집, 국외(國外) 의용병(義勇兵) 모집·훈련, 무관학교 설립, 비행기대(飛行機隊) 편성'(한시준, 1999, 173~196) 등의 광범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무관학교의 설립은 중국·러시아 등 국외 각지에서 10만 명의 의용병을 모집하고자 했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지휘할 간부 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었다. 또한 동시에 무관학교에서 사용해야 할 교범의 편찬이 추진되어야 했다. 임시정부가 1919년 12월 18일 '군무부령 제1호'로서 '「대한민국육군임시군제」·「대한민국육군임시군구제」·「임시육군무관학교조례」·「육군사학학칙(陸軍士學學則)」'²⁸⁾을 동시에 발표하

28) 한시준 편, 『대한민국임시정부법령집』, 173~196쪽 참조.

고, 군무부 직할로 육군무관학교를 설치하였던 까닭이다.

따라서 뒤이어 1920년 10월 ‘교령(敎令) 제11호’로 ‘『군무부임시편집위원부규정』’을 발포하고 ‘임시편집위원부’를 설치하여 군사교범을 편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책임자로서 윤기섭이 편집위원장으로 선출되었던 것은 신흥무관학교에서의 활동과 즉각적인 혈전(血戰)을 주장하였던 패기를 통해 볼 때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을 것이다. 당시 윤기섭은 1923년 임시정부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화되어 ‘국민대표회의’가 열리던 기간에는 제7대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선출되어 활약할(이재호, 2011, 35~40) 만큼의 역량과 위상을 갖춘 인물이었다.

그러면 과연 근 4년간의 노력 끝에 1924년 5월에 그 첫 모습을 드러낸 대한민국 임시정부 발행의 『보병조전초안』은 순한글식 표기법을 지향하고 있던 것처럼, 임시정부의 독자적인 역량에 의해 편찬된 군사교범이었을까? 그러나 그러한 예상은 전혀 기대를 빚나가는 것이었다. 그 실체는 장절항목을 상호 비교하였을 때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1909년 일본군이 제정한 『보병조전』의 번역본에 다름 아니었다. 즉, 임시정부의 『보병조전초안』은 이전의 대한제국시기에 편찬되었던 『보병조전』들과는 달리, 장절구성에서 1909년판 일본군 『보병조전』에는 없는 항목인 ‘소대전투’를 설정한다든가, ‘부록편’을 새롭게 편성하고 있지만, ‘총칙부터 제1부~제3부’에 걸친 기본구성과 내용은 1909년판 일본군 『보병조전』을 직역(直譯)한 국한문혼용의 한글판에 해당함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먼저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1909년판 일본군 『보병조전』²⁹⁾부터 그 장절항목 일람표를 제시해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29) 『보병조전』, 명치 42년(1909) 11월, 東京; 川流堂,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청구기호: 特66-370'를 분석 대본으로 삼기로 한다.

〈표 5〉 1909년판 일본군 『보병조전』의 장절항목 일람표

綱領			
제 1 부 교 련	총칙		
	제1장 각개교련	要則	
		徒手	不動ノ姿勢, 右(左)向・半右(左)向及後向, 行進
		執銃	立銃ニ於ケル不動ノ姿勢, 右(左)向・半右(左)向及後向, 立銃ヨリ擔銃及擔銃ヨリ立銃, 著劍及脱劍, 彈藥ノ裝填及抽出, 射撃, 行進, 突撃
		散兵	要旨, 行進及停止, 射撃
	제2장 중대교련	要則	
		密集	編成, 隊形, 整頓, 擔銃・立銃・著劍・脱劍裝填及抽出, 射撃, 右(左)向及後向, 行進, 方向ヲ換へ, 隊形變換, 突撃, 途步, 結銃及解銃, 解レ及集レ
		散開	要旨, 幹部及兵卒ノ責務, 散兵線ノ構成, 散兵線ノ運動, 散兵線ノ射撃, 援隊, 突撃・追撃及退却, 集レ及併セ
	제3장 대대교련	要則, 密集隊形, 展開及戰鬪	
제4장 연대교련	要則, 集合隊形, 展開及戰鬪		
제5장 여단교련	要則, 集合隊形, 展開及戰鬪		
제 2 부 戰鬪ノ 原則	제1장 戰鬪一般ノ要領		
	제2장 攻撃	要領, 遭遇戰, 防禦戰也ヲ占領セル敵ニ對スル攻撃	
	제3장 防禦		
	제4장 追撃及退却		
	제5장 夜戰		
	제6장 持久戰		
	제7장 山地及河川ノ戰鬪		
	제8장 森林及住民地ノ戰鬪		
	제9장 他兵種ニ對スル步兵ノ動作		
제 3 부	敬禮及觀兵ノ制式・刀及喇叭ノ取扱法	要則, 捧銃, 頭右(左), 軍旗ノ持持法又敬禮, 觀兵ノ制式, 刀及喇叭ノ取扱法	

다음으로 임시정부 『보병조전초안』³⁰⁾의 장절항목 일람표를 제시해

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임시정부 『보병조전초안』의 장절항목 일람표

강령(綱領)				
一 재 부	一 재 章 낫낫교련 (各個 敎鍊 ³¹⁾)	대지(要則)		
		맨손교련 (徒手敎鍊)	차림자세(不動姿勢), 돌음(轉向), 행진(行進)	
		총교련 (銃敎鍊)	세워총엿차림자세(立銃時之不動姿勢), 돌음(轉向), 총 다름(操銃法), 창끼임과뺨(着槍及脫槍), 탄알장임과뺨 (彈丸之裝填及抽出), 불질(射擊), 행진(行進), 짓찔(突擊)	
		산병교련 (散兵敎鍊)	요지(要旨), 행진·정지(行進·停止), 불질(射擊)	
	二 재 章 중대 교련 中隊 敎鍊	대지(要則)		
		一, 소 대 교 련 小 隊 敎 鍊	밀집 (密集)	짜임(編成), 번호(番號), 정돈(整頓), 돌음(轉向), 총다 름·창끼임과뺨·탄알장임과뺨(操銃法·着槍及脫 槍·彈丸之裝填及抽出), 불질(射擊), 행진·정지· 운동(行進·停止·運動), 방향바꿈(變換方向), 대형 바꿈(變換隊形), 짓찔(突擊), 길거름(散步), 총겨름과 가짐(又銃及解銃), 해집·모임(解散·集合)
			혈음 (散開)	요지(要旨), 산병줄의이름(散兵線之構成), 산병줄의운동 (散兵線之運動), 산병선의불질(散兵線之射擊), 모임·막 모임(集合·併集)
		二, 중 대 교 련 中 隊 敎 鍊	밀집 (密集)	짜임(編成), 대형(隊形), 정돈(整頓), 돌음(轉向), 총다 름·창끼임과뺨·탄알장임과뺨(操銃法·着槍及脫 槍·彈丸之裝填及抽出), 불질(射擊), 행진·정지· 운동(行進·停止·運動), 방향바꿈(變換方向), 대형 바꿈(變換隊形), 짓찔(突擊), 길거름(散步), 총겨름과 가짐(又銃及解銃), 해집·모임(解散·集合)
			혈음 (散開)	요지(要旨), 간부와병정의책임(幹部及兵丁之責任), 산병줄의이름과운동(散兵線之構成及運動), 산병선 의불질(散兵線之射擊), 원대(援隊), 짓찔·추격·퇴 각(突擊·追擊·退却), 모임·막모임(集合·併集)
		三 재 章 대대교련 (大隊敎鍊)	대지(要則)	
	밀집(密集)		대형(隊形), 행진·정지(行進·停止), 방향바꿈(變換 方向), 대형바꿈(變換隊形), 전개와싸움(展開及戰鬪)	
	四 재 章 련대교련(聯隊敎鍊)	대지(要則), 모임대형(集合隊形), 전개와싸움(展開及戰鬪)		
	五 재 章 려단교련(旅團敎鍊)	대지(要則), 모임대형(集合隊形), 전개와싸움(展開及戰鬪)		

30) 본고에서 분석대본으로 삼은 『보병조전초안』의 원문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본(자료번호: 한11883)이다. 원문을 제공해준 박물관측에 깊이 감사드린다. 한편 이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은 ‘김민호, 2017’ 참조.

二 재 부 싸 움 의 원 칙 戰 鬪 原 則	一재창 싸움 일반의 요령(戰鬪一般之要領))	
	二재창 지기(攻擊)	요령(要領), 닥침싸움(遭遇戰), 대들싸움(趨戰)
	三재창 막기(防禦)	
	四재창 추격·퇴각(追擊·退却)	
	五재창 밤싸움(夜戰)	
	六재창 버림싸움(持久戰)	
	七재창 산싸움·강내싸움(山地戰及河川戰)	
	八재창 숲싸움·마을싸움(森林戰,住民地戰)	
	九재창 다른 병종에 대한 보병의 동작(步兵對於他兵種之動作)	
三 재 부	경례와관병의법식·군 도와나팔의다름(禮式 及軍刀·喇叭之操法)	대지(要則), 바들어총(捧銃), 보와옴(右)(見右及右), 군과기 의바들음과경례법(軍旗之持法及其敬禮法), 관병식(觀兵式), 군도와나팔의다름(軍刀及喇叭之操法)
부 록 附 錄	一.바른소리와읽기어려운글자의읽는본(正音及難讀字之讀法例), 二.보병의호 령문음(步兵科號令集), 三.대대와련대의전개하는본(大隊及聯隊展開之一例), 四.보병총과그탄알·총창·군도·나팔에당한이름(關於步兵銃其彈丸·銃槍 ·軍刀·喇叭之名稱)	

위의 <표 5>와 <표 6>을 비교해보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목차구성에서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보병조전초안』과 1909년 일본군 『보병조전』이 사실상 대체로 동일함을 볼 수 있다. 다만, 제2부 중대교련의 항목에서 임시정부 『보병조전초안』의 경우 1909년판 일본군 『보병조전』에는 설정하고 있지 않은 ‘소대교련’을 설정하고 있다. 또 ‘총칙과 제1부~제3부’의 4편으로 구성된 일본군 『보병조전』에 더하여 ‘부록편’이 더 편성되고 있는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장절의 편성은 추가 항목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기본 구성의 차별성과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24년 임시정부가 발행한 『보병조전초안』에서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체제와 내용에서는 1909년판 일본군 『보병조전』을 그대로 직역하여 수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하겠다. 특히, 1909년판 일본군 『보병조전』에서는 ‘제2부 전투의 원칙’의 장절구성

31) 1906년판 『보병조전』까지는 1898년판 일본군 『보병조전』에 따라 ‘練’으로 표기하고 있다.

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종래의 교범들이 ‘연병장 및 중대~여단’의 대형연습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조우전, 진지전, 야전, 산지 및 하천전투, 삼림 및 시가지전투’ 등 실제 전투 현장을 중심으로 내용 구성이 일변(一變)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상은 <표 6>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임시정부가 발행한 『보병조전초안』의 ‘二重部 싸움의 원칙’으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도 확인된다. 즉, 윤기섭을 비롯한 『보병조전초안』 편집진도 그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1909년판 일본군 『보병조전』을 수용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표 5>와 <표 6>의 항목구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성도 논의될 수 있음이 확인된다. 먼저, 앞서 언급한대로 ‘각개교련(各個敎鍊)→낫낫교련’이라든가, ‘탄환(彈丸)→탄알’, ‘사격(射擊)→불질’, ‘돌격(突擊)→깃침’ 등과 같은 순한글식 용어를 개발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다음으로, 나름대로 임시정부 방식의 새로운 조어법이 등장하고 있다. 즉, 일본군 『보병조전』에서는 ‘右(左)向・半右(左)向及後向’으로 표기하고 있던 것을 ‘돌음(전향(轉向))’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하나의 항목으로 묶고서, 다시 그 세부 항목으로 ‘옳으로(외로) 돌아・빳기어옳으로(외로) 돌아・뒤로 돌아’를 설정한다거나, 일본군 『보병조전』의 ‘담총(擔銃)・입총(立銃)’을 ‘총다름(操銃法)’으로 묶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 일본군 『보병조전』의 ‘防禦鎮地ヲ占領セル敵二對スル攻撃’을 ‘대둑싸움(趨戰)’으로 표기한다든가, ‘敬禮及觀兵ノ制式’을 ‘예식(禮式)’으로, ‘立銃ヨリ擔銃及擔銃ヨリ立銃’을 ‘총다름(操銃法)’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 등에서는 일본식 교범에 대한 이해의 심화 정도 내지 내재화 등의 수준도 엿볼 수 있다. 특히, ‘제2부 중대교련’에서 1909년판 일본군 『보병조전』에는 없던 ‘소대교련’ 항목이 설정되고 있는 것

은 당시 만주·연해주 등의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소부대로 활약하고 있던 독립군 부대편성의 실상을 적절히 반영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차이점과 발전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에서 편찬한 『보병조전초안』은 기본적으로는 1909년판 일본군 『보병조전』의 목차 및 내용 구성을 그대로 직역(直譯)하는 바탕 위에서, 나름대로의 독자적 용어나 전술 개발 등을 부가하고 있는 것임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즉, 임시정부의 『보병조전초안』에서 볼 수 있는 순한 글식 용어라든가 새로운 ‘조어(造語)’ 등은 기본적으로 일본어 어휘 내지 문장을 ‘국한문혼용식’으로 직역(直譯)하는 바탕 위에서 그에 해당하는 자국어로 대체하거나 편집 방식에 변용을 가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내용 구성은 동일함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 자국의 구식(舊式) 군제(軍制)를 일거에 폐기하고 새로이 외국의 군제, 즉 서구식 군제를 수용하여 군제 개혁 내지 군사력 증강을 추구하였던 대한제국(갑오개혁 포함) 이후의 군제개혁의 과정에서는 불가피하면서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국의 전통적 군사문화에는 없던 내용과 구조를 이식하는 과정에서는 결코 종래의 방법이 중심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히려 주체의 모습은 주요 용어나 구령 등에서 자국어체계를 구축하는 제한적인 모습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던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도 『보병조전초안』에서 그 독자적인 측면이 ‘호령(號令), 즉 구령(口令)’과 연관된 어휘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까닭이라고 하겠다.

대한제국이 1898년판 『보병조전』을 편찬할 때부터 가장 우선시했던 사항도 호령, 즉 구령의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즉, 1898년판 『보병조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한제국은 편집진으로 참

령급(參領級)의 육군무관학교장을 포함한 4명으로 구성하는 것에 앞서서, 농상공부협판 참장(參將) 권재형(權在衡)을 위원장으로 하는 8명의 ‘호령조사위원회(號令調查委員會)’를 구성하고 있었다.(1898년 판 『보병조전』, ‘호령조사위원’, ‘편집’) 마찬가지로 임시정부에서도 『보병조전초안』을 편찬하면서 1909년판 일본군 『보병조전』에는 편성할 필요가 없었던 ‘부록편’을 설정하고, ‘바른소리와읽기어렵은글자의읽는본(正音及難讀字之讀法例)·보병의호령몸음(步兵科號令集)·보병총과그탄알·총창·군도·나팔에당한이름(關於步兵銃其彈丸·銃槍·軍刀·喇叭之名稱)’ 등의 항목이 편성되고 있던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신흥무관학교 시절 윤기섭의 역할을 회고하는 글에서 “병서는 윤기섭이 일본 병서와 중국 병서를 구하여 번역하고, 그중에서 새로운 병서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특히 구령(口令)을 통일시켰다.”(채근식, 1950, 53; 한시준, 2013, 574 재인용) 라고 하고 있다. 이 회고의 전체 문장의 구체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겠지만, 적어도 ‘구령(口令)을 통일시켰다’라는 구절은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을 듯하다. 서구식 교범에 의거해 서구에서 고용된 교관단이 훈련을 시행하였던 근대 초기의 군사 훈련에서 무엇보다도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은 ‘호령, 즉 구령의 문제’였을 것이다.

처음에는 서구식 구령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자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구령체계가 개발될 필요가 있었다.³²⁾ 신흥무관학교에서 10여년 동안 직접 군사 훈련을 책임자로 활동하였던 윤기섭이 위원장이 되어 편찬한 『보병조전초안』은 그러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순한글식 구령체계·표기체계를 지향하는 모습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2) 이 과정에서 일본 군사교범의 언어체계적 친연성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전투 방식에 있어서도 임시정부의 『보병조전초안』에서는 충분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당시 독립군은 적국인 일본군이 삼국간섭 이후 와신상담(臥薪嘗膽)하면서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통해 막강한 군사력을 건설하고(山田朗, 1997) 있던 것과는 달리, 만주·연해주 등지의 이주민이 새로이 건설한 신한촌(新韓村)을 배경으로 산악 중심의 유격전(遊擊戰), 즉 게릴라 전술을 중심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투 훈련도 정규전적인 중대 단위 이상의 전술보다는 그 아래 단계인 ‘소대 단위’의 소부대전투 훈련이 요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임시정부의 『보병조전초안』에서는 보다 하부의 전투 편제인 ‘소대전투’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겠다. 그 실체로서 임시정부 『보병조전초안』의 ‘一 재部 교련’에서 1909년판 일본군 『보병조전』에서는 더 이상 설정되고 있지 않던 ‘소대전투’를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하였던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1925년 5월 2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행한 『보병조전초안』은 기본적인 체제와 내용에서는 1909년판 일본군의 『보병조전』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편찬된 것임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한제국 시기에 발행된 『보병조전』과는 달리, 상당 부분에서 독자적인 발달상의 측면도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주요 용어에서 순한 글식 용어를 개발하고 있던 것은 차치하더라도 부록편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제국 이래 하나의 추진 방향이었던 호령, 즉 구령체계에서 자국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술체계면에서도 ‘一 재部 교련’에서 볼 수 있듯이, 1909년판 일본군 『보병조전』에서는 설정하고 있지 않던 ‘소대 전투’, 즉 소부대전술을 유지하는 등 독립군의 실상이 적절히 반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들은 대한제국 이래 신흥무관학교를 거치면서 『보병조전』의 개발

과정에서 일관되게 추진된 방향이라는 점에서, 임시정부의 『보병조전 초안』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일단의 독자적인 완성 내지 정립을 이루었던³³⁾ 것으로 평가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IV. 신흥무관학교의 『보병조전』 편찬 여부와 군사교범체계의 위상

이제 앞서 두 장에 걸쳐 살펴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고의 직접적인 서술 목적인 과연 신흥무관학교에서 『보병조전』이 편찬되었는가를 문제와 그 여부(與否)에 따라 군사교범체계는 어떻게 해명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신흥무관학교는 1910년대 독립전쟁의 메카이자,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한 항일무장투쟁의 요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전하는 군사교범이 없는 관계로 초급장교 양성기관으로서 신흥무관학교의 군사교육의 실체 등을 비롯한 군사사 관련 연구는 오히려 공백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본고에서는 대한제국 이후 간행된 『보병조전』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근대 군사교범 발달사를 비교 연구하는 방식, 특히 시계열적 대비법을 통해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현전하는 관련 인물들의 수기나 회고록이라든가, 최근에 발굴되고 있는 기관지 『신흥학(교)우보』 등의 관련 자료를 통해서도 그 군사교범체계를 해명하기에는 역부족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한제국 이후 두 차례 편찬된 『보병조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보병조전초안』을 1890년대 이후 간행된 일본군의 『보병조전』과 비교 분석

33) 1909년판 일본군 『보병조전』이 러일전쟁 이후 드디어 ‘일본식 전법체계를 완성한 단계의 교범’이라는 점에서, 임시정부의 『보병조전초안』 편집진에게도 상당히 의식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개연성도 상정해볼 수 있을 듯하다.

하였다.

그런데 그 분석결과는 예상대로 유용하기도 하지만, 일면 당혹감마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였다. 다름아니라, 대한제국 시기에 1898년과 1906년에 두 차례 간행된 『보병조전』과 192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보병조전초안』이 모두 앞선 시기에 편찬된 일본군의 『보병조전』을 사실상 직역하는 방식으로 수용하였던, 이를테면 국한문혼용체의 표기법을 동원한 일종의 번역판에 해당함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본고의 목적과 연계하면, 위의 세 차례에 걸친 『보병조전』의 편찬이 이전 시기 일본군의 『보병조전』 편찬사와 시계열적으로 대비됨에 따라, 신흥무관학교 단계의 『보병조전』 개발 여부와 그 성격도 가늠해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먼저 일본군의 『보병조전』 발달사에 바탕하여 대한제국 및 임시정부에서 편찬한 『보병조전』을 상호 대비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총괄표를 제시해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근대군제적 『보병조전』 편찬의 한·일 대비표

국가 구분	일 본		대한제국/ 임시정부
	발달단계	편찬 배경 · 성격	
1단계	프랑스식 『보병조전』 단계	1870년 프랑스식 군제 도입 1873년 · 1877년 · 1884년 3차례 개정	—
2단계	1891년판 독일식 1차 『보병조전』	1889년 독일식 군제 개혁 1888년판 독일군 『보병조전』의 번역본	1898년판 대한제국 『보병조전』
3단계	1898년판 독일식 2차 『보병조전』	청일전쟁의 경험 반영 30년식 연발총 채택	1906년판 대한제국 『보병조전』
4단계	1909년판 일본식 『보병조전』 정립	러일전쟁의 경험 반영 일본식 『보병조전』 체계 확립	1924년판 임시정부 『보병조전초안』
5단계	1928년판 일본식 2차 『보병조전』	1차대전 이후 산개전투법 폐기 → 소개전투법 채택	—
6단계	1940년판 일본식 3차 『보병조전』	만주사변 이후 대(對)소련 집단전투법 채택	—

위의 <표 7>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일본이 명치유신 이후 서구식 군제를 수용하여 본격적으로 군사제도를 근대화 하는 과정에서 모범으로 삼았던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이었다. 그 전개과정은 가장 기초적인 교범이었던 『보병조전』을 중심으로 6단계로 구분되고 있다. 특히, 두 나라 가운데 오늘날 일본군의 군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프로이센, 즉 독일식 군사제도였다.

종래 막부(幕府)의 육군이 프랑스식 군제를 채택하였던 관례를 답습하였던 명치정부가 프리시아식 군제로 전환하게 된 까닭은 군사적 측면 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으나, 종래의 병부성을 대신하여 새로이 육군성을 창설하였던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등 일본군의 신(新) 지도부는 보불전쟁 이후 독일식 군제의 채택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1889년(명치 22) 헌법이 공포되어 국가체제로 독일식 군주제를 지향하게 됨에 따라, 군사제도도 어렵지 않게 독일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특히 그 과정에는 이미 1885년 신군부 지도자들에 의해 초빙되었던 독일군 참모소좌 맥케르(メッケル, Klemens Wilhelm Jakob Meckel, 1842~1906)가 군사고문으로서 군제 개혁을 실질적으로 지도하였다.

명치유신 이후 일본군이 처음으로 사용한 군사교범은 1869년판 프랑스의 『보병조전』이었다. 이 프랑스식 교범을 본따서 1873년에는 일본군도 처음으로 『보병조전』을 제정하였다. 이후 보불전쟁에서 패전한 프랑스가 1874년 『보병조전』을 개정하자 일본군도 다시 그것을 직역(直譯)하는 방식으로 1877년판 『보병조전』을 제정하였다. 이후 또 한차례 1884년 프랑스의 『보병조전』 개정에 따라, 일본도 1887년 『보병조전』을 개정하였다.(渡邊錠太郎, 1933, 290~304; 엔도 요시노부, 1994, 91~181; 후지와라 아키라, 1994, 78~79, 116~117)

이러한 현상은 독일식 『보병조전』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지어서, 1891년판 일본군의 『보병조전』은 1888년판 독일군의 『보병조전』을 직역하는 방식으로 간행되었다. 다만, 1898년판 『보병조전』에서 부터는 청일전쟁(淸日戰爭, 1894~95)의 경험에 근거하여 『보병조전』을 개정하기 시작하여, 러일전쟁(露日戰爭, 1904~05)을 겪은 이후에 제정된 1909년판 『보병조전』에서는 드디어 일본군의 독자적인 전법체계를 완성하였다.(방위청 방위연수소전사실, 1969, 27~28) 이후에도 일본군은 다시 1차대전과 만주사변(滿洲事變)을 경험하면서 각각 1928년과 1940년에 두 차례 더 『보병조전』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위의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군이 1889년 헌법 공포 이후 독일식 『보병조전』을 채택하여 자국의 『보병조전』을 제정하였던 1891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된 『보병조전』의 변천과정이고스란히 대한제국과 임시정부의 『보병조전』 편찬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이미 앞서 두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한제국이 처음 간행한 1898년판 『보병조전』은 1891년판 일본군 『보병조전』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고, 뒤이어 대한제국이 1906년에 편찬하였던 『보병조전』도 1898년판 일본군의 『보병조전』을 복사판이나 다름없이 모방하고 있었다. 또한 이 점에서는 일본군을 적국(賊國)으로 하는 항일 독립군의 최고 지도조직으로 성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즉, 1924년 임시정부가 근 4년의 노력을 기울여 편찬한 『보병조전초안』도 기본적으로는 다시 그 후속판인 1909년판 일본군 『보병조전』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번역판에 해당하였다.

이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신흥무관학교의 『보병조전』 편찬 여부와 군사교범체계의 위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첫째로, 이렇듯 대한제국과 임시정부가 앞선 시기에 일본군이 『보병조전』을 새로이 제정할 때마다 빠짐없이 그것을 모방하여 번역판을 내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중간 시기에 위치한 신흥

무관학교 단계에서는 독자적인 『보병조전』의 편찬은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흥무관학교가 10여년 동안이나 유지·운영되었던 무관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교범이 현전하지 않는 까닭은, 그 자체의 독자적인 『보병조전』을 비롯한 군사교범의 편찬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그렇다면 신흥무관학교에서 사용된 군사교범은 기본적으로 대한제국 시기에 간행된 서적들이 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신흥무관학교는 독립군을 지휘할 초급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설치된 군사교육기관이었다.³⁴⁾ 따라서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은 군사교육을 담당할 교관을 초빙하여야 했고, 당시로서는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들이 우선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이에따라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으로 김창환(金昌桓)·이세영(李世永)·이장녕(李章寧)·양성환(梁性煥)·이관식(李寬植) 등이 교관으로 섭외되었다.(박환, 1991, 326; 한시준, 2013, 565~569) 따라서 그 군사훈련도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기성 무관학교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었다.(서중석, 2001, 124; 한시준, 2013, 573~574)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대체로 1919년 3·1운동이 발발할 때까지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신흥무관학교의 교관이나 졸업생들이 파견되어 활약했던 북로군정서 사관연성소의 교범체계의 상황을 보여주는 다음의 기사를 주목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관련 자료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34) 신흥무관학교의 설치 목적에 대한 가장 요약적인 표현은 석주(石洲) 이상룡(李相龍)이 ‘만주기사(滿洲紀事)’라는 회고시의 서두부에서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세주로 부가한 ‘辛亥年 結耕學社 設新興講習所 以軍師學術 教鍊靑年(신해년 여름, 경학사를 결성하고 신흥강습소를 열어 군사·학술과목으로 청년을 교련하였다.)’일 듯하다(『국역 석주유고』상, 215~216쪽).

7월 26일(월요일) 맑음(경신 6월 11일)

보병조전, 군대내무서, 야외요무령, 축성교범, 육군형법, 육군징벌령 등, 인쇄물 각 1부를 독군부 소대장에 출급하다.(『진중일자-이정(李楨) 일기-』, 50)

7월 1일(목요일) 맑음(군정서 사령관의 장(章))

경신국장(警信局長) 채규오(蔡奎伍)의 청구에 의하여 육군형법, 동 징벌령 각 40부를 인쇄실에 명령하여 수선하였다.(『진중일자-이정(李楨) 일기-』, 40)

7월 3일(토요일) 맑음(경신 5월 18일)

육군형법, 동 징벌령 각 40부를 경신국에 송부하다.(『진중일자-이정(李楨) 일기-』, 41)

위의 기사는 북로군정서 참모였던 이정(李楨)이 작성한 근무일지인데 여기에서 나열하고 있는 교범들은 모두 대한제국 시기에 편찬된 교본들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임시정부에서 편찬한 『보병조전초안』이 1909년판 일본군 『보병조전』의 번역판이었다는 점에서 1924년 임시정부가 『보병조전초안』을 발행하기까지, 아직은 가장 기본적인 교범인 『보병조전』조차 새로이 편찬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³⁵⁾

반면에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범들을 현전하는 자료들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군대내무서』가 1900년(광무 4)에 간행되었고, 『야외요무령』과 『축성교범』, 즉 『축성학교정』도 이때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임재찬, 1992, 69) 또 『육군징벌령』과 『육군형법』 즉 『육군법률』은 각각 1896년과 1900년에 편찬되었다.(김혜영, 2013) 다시말해, 모두 대한제국 초기에 간행된 교범들에 해당된다. 북로군정서에서도 바로 이러한 교범이나 규범들을 자체적으로 인쇄소를 두고 복제하여 사용하였

35) 다만, 북로군정서에서 교관으로 활약한 최해(崔瀼)가 사용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북로군정서훈련교본』’(독립기념관 소장)을 그 초보적 형태의 독자적인 교범 개발의 사례로 주목해볼 수 있을 듯하다.

던 것이다. 즉, 3·1운동 이후 일본 육사 출신의 장교였던 지청천(池青天)·김경천(金擎天) 등이 신흥무관학교에 합류하여 교관으로 활동하기 전까지는(김상기 외, 1997, 238~239) 대한제국 시기에 발행되었던 교범을 활용하여 군사훈련을 시행했던 것이 실상이었던 듯하다.

한편 『신흥학(교)우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신흥무관학교에서는 대한제국 시기에 간행된 교범들에 의거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한편으로, 신흥학(교)우단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교범 개발, 즉 독자적인 『보병조전』의 편찬을 위해 노력하였던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신흥학(교)우보』에 실린 상무자(尙武子) 명의의 논문이 모두 ‘보병전투연구’라는 제목으로 기술되고 있음을 주목해볼 수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흥학(교)우단이 모범으로 삼고자 하였던 전범은 대체로 일본군의 교범체계이기는 마찬가지였던 듯하다.

이를테면, 경학사(耕學社)의 사장(事障)이었던 석주(石洲) 이상룡(李相龍)이 당시의 상황을 “또 합니하(哈泥河) 가의 깊숙한 구역 하나를 점거하여 중학교를 설립하여, 군사과(軍事科)를 부설하여 일본 병서(兵書)를 몰래 구해다가 가르쳤다.”³⁶⁾라고 술회하고 있다든가, 원병상의 회고록에서 “병서는 윤기섭이 일본 병서와 중국 병서³⁷⁾를 구하여 번역하고, 그중에서 새로운 병서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특히 구령(口令)을 통일시켰다.”(채근식, 1950, 53; 한시준, 2013, 574 재인용)라고 하고 있음을 주목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흥학(교)우단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독자적인 교범을 편찬하기 위한 노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는 앞서 ‘특히 구령(口令)을 통일시켰다’ 라고 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의 교재를 이용하여 훈련하였던 데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호령, 곧 구령의 자국화(自國化) 및 통일(統一)이었다.

36) 『국역 석주유고』하, 『행장(行狀)』, 156쪽 및 『선부군유사(先府君遺事)-』, 603쪽.

37) 조선시대 이래의 전통병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제국을 비롯한 구한국(舊韓國)의 군사 근대화 과정에는 일본인 교관을 시작으로 미국·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군사 교관이 초빙되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따라 구령조차도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혼선을 빚게 되는 상황도 발생되고 있었다.

따라서 구령의 내재화를 통한 독자적 구령체계의 개발 못지않게 구령의 통일도 요구되었다. 이를테면, 대한제국이 처음으로 1891년판 『보병조전』을 발행하면서 편집진으로는 참령급(參領級)의 육군무관학교장을 포함한 4명으로 구성하였던 반면에, 농상공부협판 참장(參將) 권재형을 위원장으로 하는 8명의 ‘호령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던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24년 임시정부가 발행한 『보병조전초안』에서도 별도로 부록편을 통해 ‘보병의 호령 모음(步兵科號令集)’이라든가, ‘보병총과 그 탄알·총창·군도·나팔에 당한 이름(關於步兵銃其彈丸·銃槍·軍刀·喇叭之名稱)’ 등을 편성하고 있던 것도 마찬가지로 측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신흥무관학교에서 10여년 동안 학감·교감·교장으로서는 군사훈련의 책임자이자 지도자로 활동하였던 윤기섭이 중심이 되어 다시 임시정부가 주도하는 『보병조전초안』을 편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보병조전초안』을 대한제국 이후 임시정부에 이르는 『보병조전』 개발의 일단의 완결판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말하자면, 대한제국 이후 구령체계를 통일하고 주요 전투용어 등에 대해 독자적인 자국어체계를 구축하려는 일련의 노력이 임시정부의 『보병조전초안』에서 목차 및 부록편의 순한글식 용어사용 및 호령모음 등으로 종합적으로 수렴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신흥학(교)우단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독자적 교범 편찬의 또 하나의 방향은 독립군의 실정에 맞는 전투법, 즉 전술의 개발이었다. 독립군은 제국주의(帝國主義) 국가의 정규군이었던 일본군과는 달리 규모

나 재정 등에 있어서 모두 절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였다. 따라서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전투를 수행하려면, 매복이나 기습 등의 게릴라식 전투, 즉 유격전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독립군의 기본적인 전투 단위는 일반적인 정규군의 규모와는 달리 소부대로 경량화될 필요가 있었다. 이를테면, 임시정부가 『보병조전초안』을 편찬하면서, 본래 1909년판 일본군 『보병조전』에서는 설정되지 않았던 ‘소대전투’를 유지하고 있던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앞서 제시한 <표 5>의 1909년판 일본군 『보병조전』 ‘제2부 전투의 원칙’의 장절구성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 교범은 이전의 교범들이 ‘연병장 및 중대~여단’의 대형연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것과는 달리, ‘조우전, 진지전, 야전, 산지 및 하천전투, 삼림 및 시가지 전투’ 등 실제 전투 현장을 중심으로 내용 구성이 일변(一變)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상은 <표 6>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임시정부가 발행한 『보병조전초안』의 ‘二재部 싸움의 원칙’으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윤기섭을 비롯한 임시정부의 『보병조전초안』 편집진도 그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1909년판 일본군 『보병조전』과 그 이전에 제정된 『보병조전』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편찬된 1924년의 임시정부 『보병조전초안』에서 ‘소대전투’의 항목을 유지하였던 것도 충분히 의식적인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까닭은 앞서 언급했듯이, 주로 산악지대에 의지해서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 독립군의 특성상, 정규적인 규모의 부대보다는 소규모의 부대 전술, 즉 소부대 전술이 보다 긴요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임시정부가 『보병조전초안』을 발행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앞서 살펴본 호령, 즉 구령이나 주요 전투 용어 등과 마찬가지로 독립군에 적합한 부대 전술 등에서도 일단의 독자적

인 모습을 갖추고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보병조전초안』은 대한제국 이후 진행된 일련의 『보병조전』 중심의 전술 개발의 측면에서도 일단의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임시정부가 『보병조전초안』을 발행하고 있던 단계에 이르러서는 호령, 즉 구령이나 주요 전투 용어 및 독립군에 적합한 부대 전술 등에서 일단의 독자적인 정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그 중심에는 신흥무관학교의 창립멤버로서 10여년 동안 군사훈련의 책임자이자 지도자로 활약한 산증인이었던 윤기섭이 임시정부 임시편직위원부의 위원장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흥무관학교에서는 비록 『보병조전』을 비롯하여 별도로 독자적인 군사교범을 편찬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신흥학(교)우보』의 일련의 보병전투연구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임시정부의 『보병조전초안』에서 일단의 완결을 이루는 『보병조전』 중심의 군사교범 개발의 실질적인 토대를 쌓아왔던 가교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하여 말하자면, 1924년 5월 임시정부가 발행한 『보병조전초안』에서는 그 원전이었던 1909년판 일본군 『보병조전』과는 달리 목차구성에서 주요 용어의 순한글식 표기를 지향하고, ‘一 재部 교련’에서는 ‘소대전투’의 항목을 유지하는 등의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록편을 통해 대한제국 이후 하나의 중점 추진사항이었던 독자적 구령 체계도 정립되었다. 말하자면, 일찍이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병조전』을 구조와 내용면에서는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주요 용어 및 구령체계, 그리고 독립군의 활동에 적합한 전술 개발의 측면에서는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던 정책지향이 임시정부의 『보병조전초안』에 이르러서 일단의 완결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임시정부 수립 직전 단계에 위치하면서 윤기섭을 통해 연계되는 신흥무관학교는 『보병조전』 중심의 일련의 군사교범 개발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했던 가교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대한제국 시기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 간행된 『보병조전』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근대 군사교범 발달사를 비교 연구하는 방식, 특히 시계열적 대비법을 통해 신흥무관학교의 『보병조전』 편찬 여부와 군사교범체계의 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흥무관학교가 1910년대 독립군 양성의 메카이자,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한 항일무장투쟁의 요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전하는 군사교범이 없는 관계로 독립군 간부 양성기관으로서 군사교육의 실제 등을 비롯한 군사사 관련 연구가 여전히 공백지대로 남아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그 분석 결과는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유용한 성과이기도 하였지만, 다소 당혹스러운 것이기도 하였다. 대한제국 시기 및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보병조전』을 러시아의 영향이나 독자적인 성과로 이해했던 지금까지의 시각과는 전혀 달리, 체제와 내용면에서 모두 일본군의 『보병조전』을 직역(直譯)하는 방식으로 수용한 사실상의 번역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흥무관학교에 의한 『보병조전』의 편찬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현전하는 자료에 근거할 때 대한제국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이르는 기간에 『보병조전』은 세 차례 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즉, 대한제국 시기에는 1898년과 1906년에 두 차례 『보병조전』이 발행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보병조전초안』이라는 이름으로 1924년 5월에 군무부 임시편집위원부의 명

의로 편찬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1870년 프랑스식 군제를 도입하여 근대적 군제 개혁을 시행한 이래 1889년 독일식 군제로 전환하기까지 세 차례 『보병조전』이 개정되었고, 이후 태평양전쟁이 종전될 때까지 다시 다섯 차례 『보병조전』이 간행되었다.

그런데 대한제국 및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세 차례의 『보병조전』은 일본군이 독일식 군제를 채택하여 첫 번째로 제정하였던 1891년 『보병조전』에서부터 1898년에 1차 개정되고, 다시 1909년에 개정되었던 『보병조전』의 발달 단계를 고스란히 수용하는 방식으로 편찬되고 있었다. 즉, 대한제국의 1898년판 『보병조전』은 일본의 1891년판 『보병조전』과 목차 구성과 내용이 동일하였고, 1906년판 『보병조전』은 일본군이 1898년에 발행한 『보병조전』과 체제와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였다. 심지어 임시정부가 1924년에 편찬한 『보병조전초안』조차도 순 한글식 표기체계를 지향하고 있었지만, 기본적인 항목구성이나 내용은 사실상 1909년판 일본군의 『보병조전』 그대로였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결과에 의거하는 한 그 중간 시기에 위치하였던 신흥무관학교 단계에서는 별도로 『보병조전』이 편찬되었다고 볼만한 여지는 없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신흥무관학교에서 사용하였던 군사교범체계 및 그 위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었다. 신흥무관학교에서는 『신흥학(교)우보』에 실린 ‘상무자’ 명의를 일련의 ‘보병전투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독자적으로 『보병조전』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그 노력은 대한제국 이래 원전으로 삼았던 일본군 『보병조전』의 체제와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나 교관들이 활약하였던 북로군정서 사관연성소 등에서 대한제국 시기에 발행된 『보병조전』 외에 『군대내무서』·『야외요무령』 등을 교범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3·1운동 직후

일본 육사 출신의 위관장교였던 지청천·김경천 등이 신흥무관학교에 합류하자 곧바로 그들을 중심으로 교관단을 편성하였던 사실 등을 주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흥무관학교에서 추진된 독자적인 군사교범의 편찬 방향은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호령(號令), 즉 구령(口令)을 통일하고 주요 전투 용어의 독자적 자국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1898년판 『보병조전』을 편찬할 때부터 편집진 구성에 앞서서 ‘호령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던 것에서부터, 1924년판 『보병조전초안』의 목차구성 및 부록편에서 순한글식표기법 및 ‘호령문음’ 등의 항목을 설정하는데 이르기까지, 비록 기본 체제와 내용은 일본판 원전을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주요 용어 및 구령체계 등에서는 자국어를 사용하는 독자적인 교범개발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또 하나의 과제로는 적국인 일본군과 대비하여 병력이나 재정 등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인 처지에서 타국(他國)에 건설된 신한촌에 의거하여 게릴라적 전술, 즉 산악지대에 의거한 유격전술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던 독립군이 실정에 맞는 전술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그러한 노력은 1924년 임시정부에서 편찬한 『보병조전초안』에서 1909년판 일본군 『보병조전』에는 없던 ‘소대전투’ 항목을 유지하는 모습으로 반영되었다. 말하자면, 임시정부가 발행한 『보병조전초안』에서는 대한제국 이후 추진된 『보병조전』 중심의 독자적인 군사교범 개발 노력이 독립군의 실정에 맞는 소부대전술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립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일련의 『보병조전』의 편찬 과정에는 일찍이 신흥무관학교의 전 기간 동안 학감·교감·교장 등으로 군사훈련의 책임자이자 지도자로 활약하였던 윤기섭이 다시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보병조전초안』의 편찬을 주도하는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즉, 신

흥무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주관하면서 군사교범을 개발하는데 힘썼던 윤기섭의 경력과 경륜을 임시정부 『보병조전초안』의 편찬 방향과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던 셈이다. 말하자면, 신흥무관학교는 임시정부의 『보병조전초안』에 이르러 일단의 완성을 이루는 대한제국 이후 독립군에 이르는 독자적인 『보병조전』 개발의 가교적인 토대를 구축했던 시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투 고 일: 2019년 1월 23일

심 사 완 료 일: 2019년 2월 12일

게 재 확 정 일: 2019년 2월 15일

참고문헌

- 김광재, 2009, 『윤기섭,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족혁명가』, 역사공간.
- 김민호, 2013, “이범석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4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김민호, 2015,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 발행 《보병조전초안》” 『기록인』30, 행전안전부 국가기록원.
- 김민호, 2017, “대한민국임시정부 《보병조전초안》의 편찬과 성격” 『군사연구』144, 육군군사연구소.
- 김병기, 2011, “신흥무관학교와 만주독립군” 『사학지』43, 2011, 단국대사학회.
- 김상기 · 채영국, 1997, “남만주에서의 한국독립운동” 『중국 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한국독립운동자협회.
- 김순석, 2018, “석주 이상룡의 현실인식과 대응방략의 변화” 『한국민족운동사연구』9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김영수, 2006, “러시아군사교관 단장 뿌짜파와 조선 군대” 『군사』6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김영수, 2017, “명례궁약정과 한러비밀협정을 통해본 모스크바대관식(1896)” 『역사와현실』106, 한국역사연구회.
- 김주용, 2009, “동천 신파군의 독립운동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6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김주용, 2011, “《신흥학우보》를 통해본 신흥무관학교” 『한국독립운동사연구』4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김주용, 2013, “신흥무관학교의 문을 두드리다-독립군 배양의 요람, 그 실체를 확인하다-” 『청산리대첩 이우석수기 · 신흥무관학교』,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김주용, 2017, “신흥무관학교와 무장독립투쟁” 『독립군 · 광복군의 독립전쟁과 육군의 역사』(학술회의자료집), 육군사관학교.

- 김혜영, 2013, “갑오개혁 이후 군사법제도의 개혁-《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을 중심으로-” 『군사』8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문준호, 2018, “러일전쟁 이전 대한제국 원수부의 군무정책 강화와 군사운영의 성격” 『군사』10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박성순, 2016, “범정 장형의 만주에서의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79, 한국근현대사학회.
- 박환, 1989^a, “만주지역의 신흥무관학교” 『사학연구』40, 한국사학회.
- 박환, 1989^b, “이회영과 그의 민족운동” 『국사관논총』7, 국사편찬위원회.
- 박환, 1991,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 박환, 1998, “재러한인 민족운동가 김경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1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박환, 2014,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과 지청천”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 서중석, 2000, “청산리전쟁 독립군의 배경-신흥무관학교와 백서농장에서
의 독립군 양성-” 『한국사연구』111, 한국사연구회.
- 서중석, 2001,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 서인한, 1996, “대한제국 군사훈련체계에 대한 일고찰-《보병조전》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군사』33, 국방군사연구소.
- 서인한, 2000,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도서출판 해안.
- 신용하, 1985, “신민회의 창건과 그 국권회복운동” 『한국민족독립운동사
연구』, 을유문화사.
- 심현용, 2009, “근대시기 한·러 군사협력의 역사적 고찰: 러시아 군사교
관단 활동과 조러연합군” 『시베리아공동연구』5, 한림대출판부.
- 이기동, 1982, 『비극의 군인들-일본 육사 출신의 역사-』, 일조각.
- 이민원, 2001, “19세기말 러시아 군사교관단의 활동과 역할” 『군사』44, 국
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이재호, 2011, “윤기섭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참여와 활동” 『한국독립운
동사연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이현희, 1989, “신흥무관학교연구” 『동양학』29,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 임재찬, 1988, “구한말 군사교범-火器學을 중심으로-” 『3사논문집』26, 육군3사관학교.
- 임재찬, 1989^㉑, “구한말 육군무관학교의 군사교범-학술학을 중심으로-” 『3사논문집』29, 육군3사관학교.
- 임재찬, 1989^㉒, “구한말 육군무관학교의 군사교범” 『3사논문집』29, 육군3사관학교.
- 임재찬, 1992, 『구한말 육군무관학교 연구』, 제일문화사.
- 조문기, 2011, “신흥학교의 창설 경과와 역사적 의의에 대한 시론-試論新興學校辦學經過及歷史意義-」 『충청문화연구』7,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 조필균, 2016, “《신흥학우보》를 통해본 신흥무관학교 군사교육 내용의 현대적 해석” 『학예지』23, 육사 육군박물관.
- 조필균, 2017, “만주지역 독립군 군사교육자료의 현대적 해석과 함의: 《신흥학우보》와 《독립군간부훈련교본》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총』6-2권, 미래군사학회.
- 차문섭, 1973, “구한말 육군무관학교연구” 『아세아연구』50,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차문섭, 1996, 『조선시대 군사관계연구』, 단국대출판부.
- 채근식, 1950, 『무장독립운동비사』, 대한민국공보처.
- 하상식, 2000,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러시아·북한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론총』40-4호, 한국국제정치학회.
- 한시준, 2011, “신흥무관학교와 한국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4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한시준, 2013, “신흥무관학교와 윤기섭” 『한국근현대사연구』67, 한국근현대사학회.
- 한용진·채성주, 2001, “개항 이후 사관양성에 관한 고찰” 『한국교육사학』23-1, 한국교육사학회.

- 한철호, 1992, “갑오경장 중(1894~1896) 정동파의 개혁활동과 그 의의” 『국사관논총』36, 국사편찬위원회.
- 황병무, 1967, “일본이 시행한 군제개혁과 경군(京軍)-갑오 을미년 개혁을 중심으로-” 『논문집』5, 육군사관학교.
- 현광호, 2001, “대한제국기 집권층의 동북아정세 인식” 『사학연구』63, 한국사학회.
- 현광호, 2002, “대한제국의 군사외교” 『한국민족운동사연구』3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국역 석주유고』상·하, 2018, 경인문화사.
- 「진중일지-이정(李楨)일기-」, 『독립운동사자료집』10(독립군전투사자료집), 197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 渡邊錠太郎, 1933, “明治維新以後に於ける我國陸軍戦法の沿革に就て” 『日本兵制史』, 東京; 일본역사지리학회.
- 고야마 히로타케(小山弘健), 1944, 『近代日本軍事史概説』, 東京; 伊藤書店.
- 방위청 방위연구소전사실, 1969, 『關東軍』1, 東京; 朝雲新聞社.
- 엔도 요시노부(遠藤芳信), 1994, 『近代日本軍隊教育史研究』, 東京; 青木書店.
- 후지와라 아키라(藤原彰) 著·엄수현 譯, 1994, 『일본군사사』, 시사일본어사.
- 山田朗, 1997, 『軍備擴張の近代史-日本軍の膨脹と崩壊』, 東京; 吉川弘文館.

Abstract

Exploration of Military manual of the Military Academy of Sinheung

- Focus on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Modern Korea and Japan
to *Infantry Training Manual* -

Jeon, Ho-soo

Research Official,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Military Academy of Shinheung which was the Mecca in 1910's and the Cradle of the training of Korean Independent Forces, whether Military manual had been published or not and its historical status by contrasting the history of Modern Korea-Japan Comparative Development of *Infantry Training Manual* by time-series. *Infantry Training Manual* or *Draft Infantry Training Manual* was compiled three times from the Korean Empire to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898, 1906, and 1924 and Japan revised its *Infantry Training Manual* five times from the adoption of German Military System in 1889 to the Defeat in 1945.

Modern Korean *Infantry Training Manual* or *Draft Infantry Training Manual* was confirmed that was virtual translated version of the Japan's *Infantry Training Manual* established in the preceding three periods, i.e. 1891, 1906 and 1909. Thus the Military Academy of Shinheung in the

intermedite period couldn't publish *Infantry Training Manual* in conciusion. However Yoon Gi-seop, the director leader of it's military training, achieved a certain degree of perfection of an independent Command System and a Code System suitable for the Platoon Tactics of the Korean Independent Forces in *Draft Infantry Training Manual* publish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1924. Therefore the Military Academy of Shinheung was able to be established itself as a period of bridge role foundation for successional *Infantry Training Manual* developments.

Keywords: the Military Academy of Shinheung, *Infantry Training Manual*, Yoon Gi-seop, the Korean Empire,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